

2020. 4. 6. (월) 오전 11: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문의: 박정훈 위원장 (01054544043) / 조봉규 부산지부준비위원장 (01026952626)

“생각대로 횡포, 노동부가 나서라”

- 부산생각대로 수영1호점에서 노동착취 벌어져.
- 출퇴근 지휘감독, 강제배차 강요, 프리랜서 계약했지만 사실상 근로자처럼 일 시켜.
- 주 7일 80시간 일하기도,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퇴직금/해고예고수당 등 체불임금 계산해보니 37,345,000 원
- 위탁계약서엔 강제로 일해야 한다고 명시.
- 생각대로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배달대행업체에서, 불합리한 처우 민원, 부산시와 지방노동관서가 문제 해결 나서야
- 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 결성, 노동청 진정할 것.

○ 일시 : 2019년 4월 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 주최 : 라이더유니온 / 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 (준)

- 2019년 11월 요기요 플러스 배달라이더는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 이후 계약서는 위탁계약서로 쓰고 실제로 일을 시킬 때는 근로자로 부리는 꼼수(일명 위장플랫폼)에 제동이 걸렸다. 라이더유니온이 문제제기한 요기요플러스 사건을 계기로 라이더들의 권리의식이 재고되고, 배달업계에서도 강제배차, 출퇴근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개선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계약서엔 프리랜서라고 써놓고 출퇴근 지휘감독은 물론, 강압적인 강제배차와 업무지시가 벌어지고 있다. 또, 불합리한 오토바이 리스와 오토바이 강탈 사건 등이 벌어지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노동청이 적극적인 감시와 계도가 필요하다. 부산 생각대로 수영1호점에서도 위장플랫폼 사건이 벌어져 최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다.

[사건개요]

- ◎ 2018년 11월 26일부터 생각대로 부산 수영1호점에서 일했던 라이더유니온 임승환 조합원은, 2020년 1월 27일 갑자기 앱 접속이 막혔다. 1월 27일은 부산에 강풍특보가 내려졌던 날로, 생각대로 사무실에서는 2시부터 배달접수를 막고, 기사들에게 1시간동안 정비시간을 가지라 공지했다. 임승환 조합원은 기존에 있던 배달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풍을 뚫고, 2시 45분까지 배달을 완료하고 집에서 젖은 핸드폰과 옷을 말리고 샤워를 했다. 그 사이 생각대로는 강제로 배달을 배차시켰고, 임승환 조합원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약 20분 정도의 시간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는 임승환 조합원의 앱 접속을 막았다. 라이더유니온은 이와 관련하여 생각대로 본사와 대화하기 위해 3월 17일 팩스로 공문을 발송하고, 3월 18일 생각대로측에 전화로 공문확인과 답을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답이 오지 않았다.
- ◎ 라이더유니온은 임승환 조합원과의 상담과정에서, 생각대로본사가 제작한 생각대로 업무규정 계약서를 확보했다. 이 계약서를 보면, “1. 약정한 업무시작 시간, 종료시간을 지킨다(회사의 실시간 진행사항에 따라 업무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2. 신의에 맞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연락두절이나 결근이 없어야 한다. 3. 회사가 명령한 강제오더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기사는 타 대행 배달 대행업체나 퀵서비스, 유사업체의 겸직을 엄금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한다.” 등 근로자보다 강한 업무지휘를 강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그가 대표와 나눈 대화를 보면 강제배차는 물론 식사시간, 출퇴근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임승환 조합원이 해고된 이유도 강제배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임승환씨는 생각대로 수영지점에서 긴 기간 일하면서 3개월간 주7일 이상 일한 적도 있었다. 주휴, 연장, 야간, 휴일, 연차 퇴직금 등을 계산해보니 37,345,000 원이었다. 엄청난 노동착취가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플랫폼노동’, ‘혁신’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 ◎ 라이더유니온 자문변호사 조애진변호사는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정도나 보수의 성격,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보면, 생각대로 배달라이더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노동자성 표지를 상당부분 충족하고 있다. 임금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건 살인적 수준의 장시간 노동인데, 과로사 기준 노동시간을 30% 이상 초과하는 정도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노동조건을 살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 라이더유니온은 조애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임승환조합원의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한다. 4월 6일에는 라이더유니온 부산조합원들과 함께 부산고용노동청앞에서 생각대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비슷한 형태로 일하는 지역 배달대행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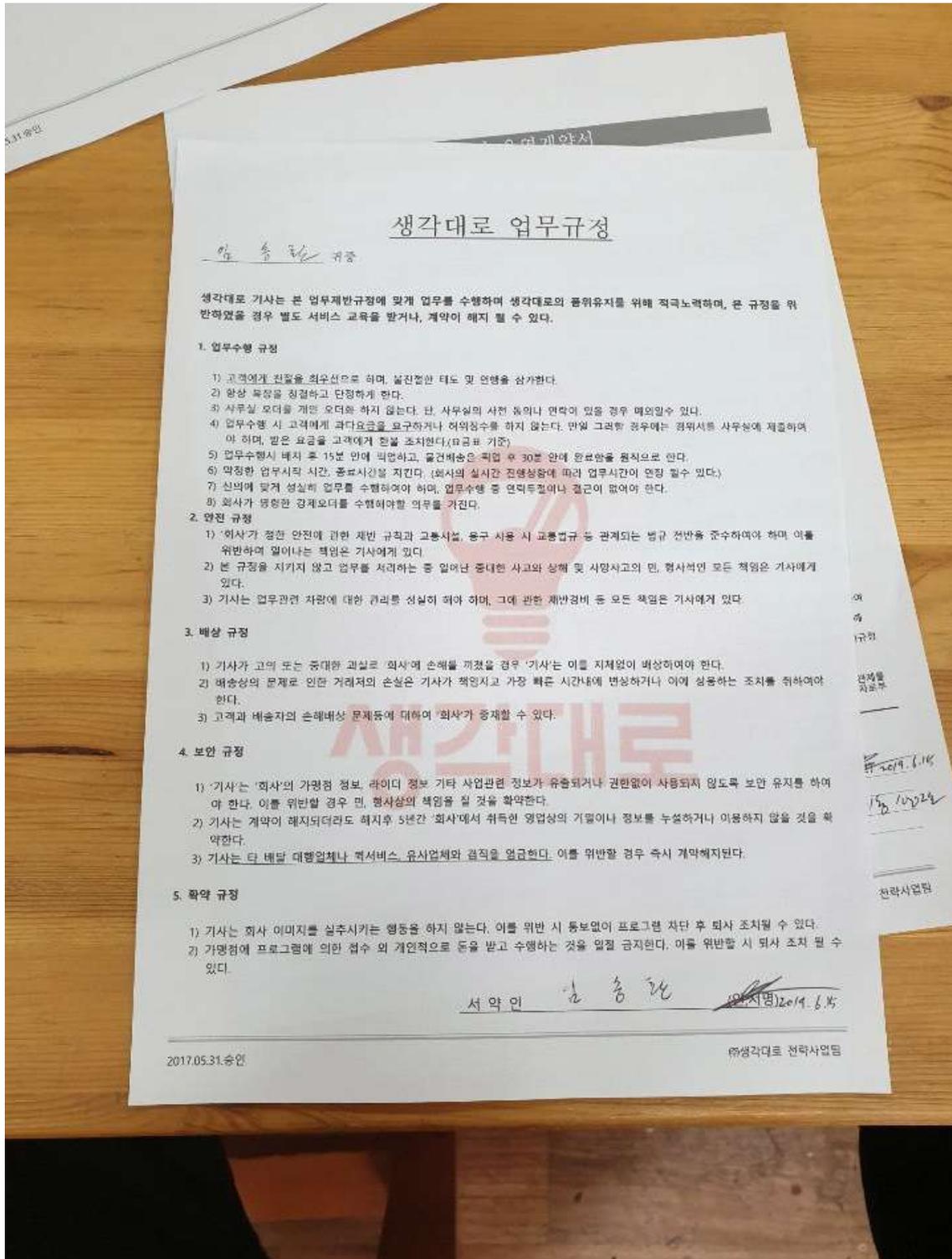
<기자회견 프로그램>

○ 생각대로 횡포, 노동부가 나서라

- 일시 : 4월 6일 (월) 오전 11:00
- 장소 : 부산고용노동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 주최 : 라이더유니온 / 라이더유니온 부산지부(준)
- 사회 :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

시간	내용	비고
11:00~11:05	기자회견 취지 및	구교현
11:05~11:10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박정훈 라이더유니온위원장
11:10~11:15	생각대로 피해 증언	임승환조합원
11:15~11:20	부산배달산업의 문제	조봉규 준비위원장
11:20~11:25	연대발언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분부장
11:25~11:30	고용노동부 부산지청 면담요청서 전달	기자회견참가자

[참고자료1] 생각대로 수영지점이 작성한 생각대로 업무규정 계약서



생각대로 업무규정

김홍관

생각대로 기사는 본 업무규정규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며 생각대로의 품위유지를 위해 적극노력하며,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도 서비스 교육을 받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1. 업무수행 규정

- 1) 고객에게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며, 불친절한 태도 및 언행을 삼가한다.
- 2) 항상 복장을 청결하고 단정하게 한다.
- 3) 사무실 오더를 개인 오더로 하지 않는다. 단, 사무실의 사전 동의나 연락이 있을 경우 예외일 수 있다.
- 4) 업무수행 시 고객에게 과다요금을 요구하거나 허위장수를 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받은 요금을 고객에게 환불 조치한다.(요금부 기준)
- 5) 업무수행시 배차 후 15분 안에 도착하고, 운전비용은 픽업 후 30분 안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6) 약정된 업무시작 시간, 종료시간을 지킨다. (회사의 실시간 진행상황에 따라 업무시간이 연장 될수 있다.)
- 7) 신뢰에 맞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연락두절이나 결근이 없어야 한다.
- 8) 회사가 명명한 강제요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킨다.

2. 안전 규정

- 1) '회사'가 정한 안전에 관한 제반 규칙과 교통시설, 응급 사용 시 교통법규 등 관계되는 법규 전반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일어나는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 2) 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중 일어난 중대한 사고와 상해 및 사망사고의 민, 형사적인 모든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 3) 기사는 업무관련 차량에 대한 관리를 성실히 하여 하며, 그에 관한 제반경비 등 모든 책임은 기사에게 있다

3. 배상 규정

- 1) 기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기사'는 이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2) 배상상의 문제로 인한 거래처의 손실은 기사가 책임지고 가장 빠른 시간내에 보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고객과 세운자의 손해배상 문제등에 대하여 '회사'가 중재할 수 있다.

4. 보안 규정

- 1) '기사'는 '회사'의 가맹점 정보, 아이디 정보 기타 사업관련 정보가 유출되거나 권한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
- 2) 기사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후 5년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상의 기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을 계약한다.
- 3) 기사는 타 배달 대행업체나 쪽서비스 유사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해지된다.

5. 계약 규정

- 1) 기사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통보없이 프로그램 차단 후 퇴사 조치될 수 있다.
- 2) 가맹점에 프로그램에 의한 접수 외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수행하는 것을 일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퇴사 조치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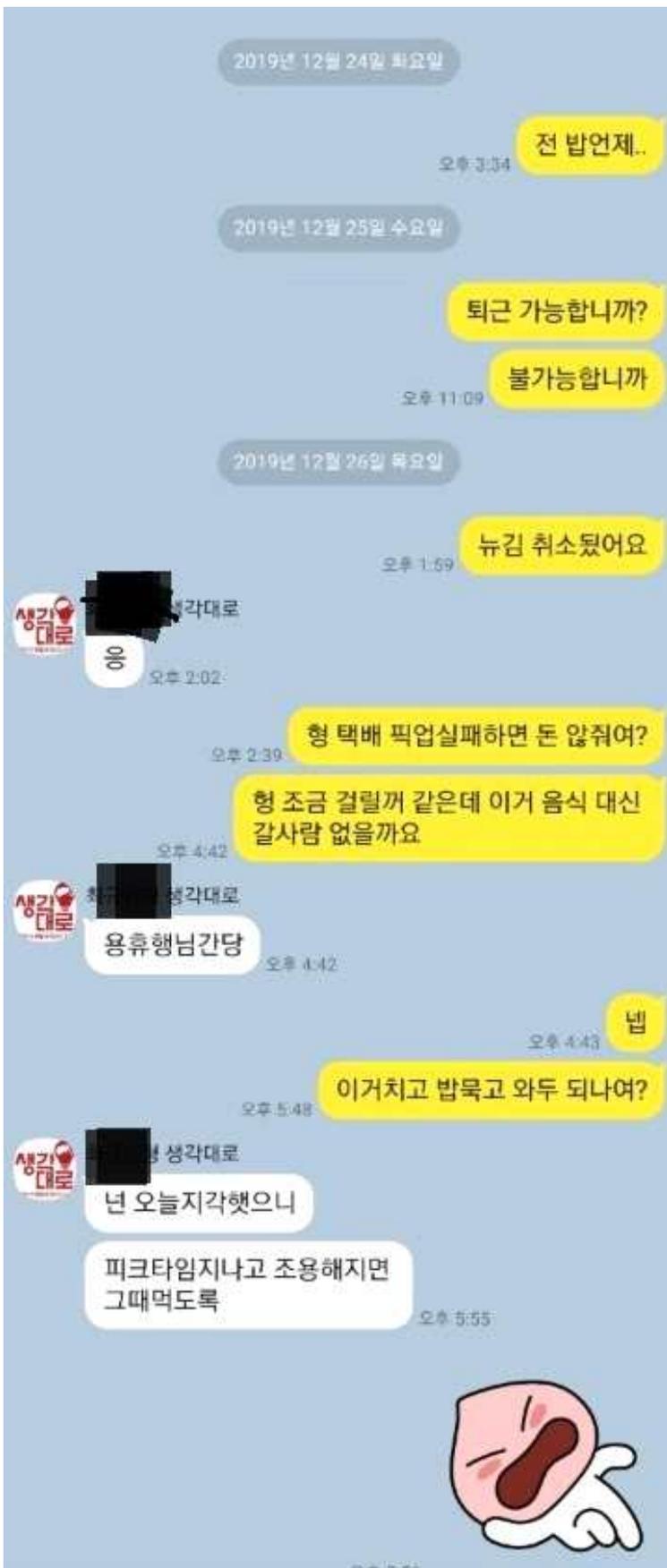
서약인 김홍관 (인) 2019.6.15

2017.05.31.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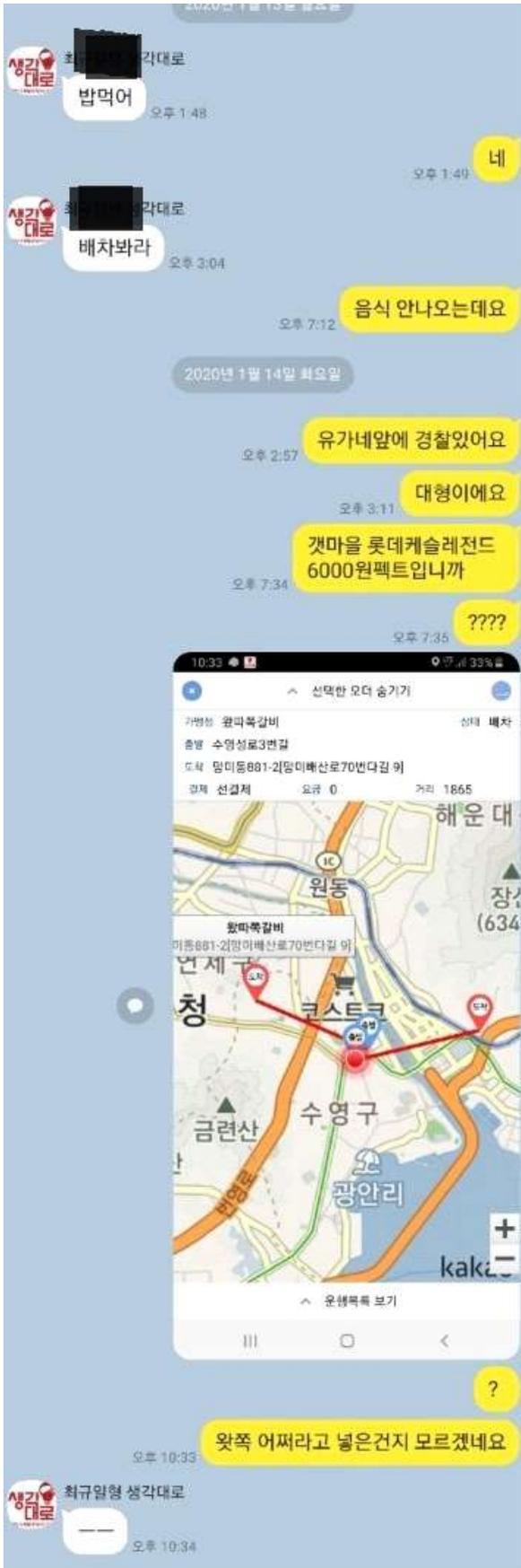
생각대로 전락사업팀

여
가
규정
생각대로
2019.6.15
15/10/24
전락사업팀

[참고자료2] 지점장과의 카톡대화



식사시간 제한. 프리랜서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밥먹어는 식사 시간 제한, 배차봐라는 강제배차를 넣은 것을 보라는 의미다. 무리한 강제배차에 어떻게 배달을 가냐고 항의하는 모습